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방역관리로 가축질병 청정화 이루어내야



임 경 중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국내 낙농육우산업은 구제역 등 재난형 질병 발생과 낙농 강국들과의 FTA 개방으로 인한 국제시장 경쟁 심화, 소비패턴 변화, 동물복지, 가축분뇨,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특히,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 재발은 “축산물 가격 상승”과 “소비심리 위축”, “수출 제한” 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된다.

이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고 깨끗한 농장 및 주변 가꾸기 실천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범국민 공감 축산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구제역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사전예방만이 최선의 길임을 주지하고 예방접종 매뉴얼에 따른 철저한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의 핵심인 농장의 세척·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자 및 차량, 가축 등에 대한 철저한 차단방역과 수시로 가축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임상증상 이상축 발견 즉시 1588-4060(지자체), 1588-9060(검역본부)으로 신고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통해 더 이상 확산을 차단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구제역 재발방지 및 사전검색을 위한 강도 높은 현장 방역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교육 등의 추진으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향상시켜 구제역·시 등 국가 재난형 질병을 조기에 청정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청정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중장기 청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낙농육우농가에서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현장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 및 동참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방역은 제2의 국방”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농장주와 종사자는 농장 내의 방역준칙을 꼼꼼히 체크하고 철저히 실천하여야 한다. 방역 주체인 축산농가에서 내 농장의 가족 같은 가축을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축산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기본에 충실한 방역관리를 “실천”할 때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최소화되고 생산성이 보장되며 가축질병의 청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인 방역·위생·검역 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우리 축산업의 밝은 미래를 향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낙농육우농가와 항상 함께 노력하겠다. ㉞